



cpbc 라디오 FM105.3MHz | 스마트폰 어플 'cpbc 뽕'



## cpbc 라디오 시사프로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앵커: 김혜영 기자 | 연출: 김영규 기자 | 작가: 이지혜, 이진아 | 방송시간: (월~토) 7시~8시

### 2018 상반기 인기 인터뷰 Best 7



유난히 이슈가 많은 상반기였습니다. 눈코 뜰새 없이 바빴지만, 청취자 여러분과 의미 있는 순간들을 함께할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상반기 화제의 인터뷰 7개를 골라봤습니다.

#### 1. 염수정 추기경(4월 30일)



11년 만에 열린 남북정상회담. 그래서 특급손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서울대교구장이자 평양교구장 서리인 염수정 추기경님이신데요. 추기경님은 “판문점 선언의 의미 있는 성과는 대화”라면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기대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북한에 성령의 불길어 꺼지지 않았다고 믿는다”며 신자들의 기도를 거듭 요청하셨습니다.

#### 2. 명원스님(5월 22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가톨릭평화방송 근처에 계신 스님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남산 한옥마을에 있는 충정사 주지 명원스님이신데요. 걸어오는데 10분 정도 걸리셨다고 합니다. 불교에 귀의하신 계기부터 인사법, 자비의 의미까지 상세하게 설명해주셨는데요. “자비와 사랑은 다르지 않다”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 3.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아랑 선수(2월 28일)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끈끈한 팀워크로 계주 금메달을 따낸 김아랑(헬레나) 선수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환한 웃음이 트레이드마크인 선수쥬. 인터뷰 전문 조희수가 쪽쪽 올라가고, 인용 기사도 많았습니다. 김아랑 선수는 “진통제를 먹으면서 훈련을 해왔다”며 “진통제를 그만 먹고 싶다”고 말해, 청취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 4. 가수 박지현(2월 5일)



여섯 아이를 낳아 화제가 된 그룹 V.O.S 멤버 박지현 씨와의 인터뷰도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박 씨는 “아이가 많아서 힘들다기보다 기쁘고 즐겁다”고 했습니다. 육아 비법을 묻는 질문에는 “즐거십시오”라고 했는데요. 저출산 시대, 다둥이 가정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5. 박원순 서울시장(3월, 4월)



6.13 지방선거의 꽃으로 불린 서울시장 선거. 박원순 서울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2번이나 출연해서 야당 후보들과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6년간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꿈을 실현시키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결국 서울시장으로는 처음으로 3선에 성공했습니다.

#### 6.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6월, 7월)



얼마 전 막을 내린 러시아 월드컵, 축구 해설가로 유명한 신문선 교수가 한국 축구대표팀 경기 다음 날 고정으로 출연했습니다. 스웨덴 전 다음날엔 스타팅 멤버 기용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독일전 다음날엔 “원팀으로 뭉친 것이 승리의 요인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신 교수는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대한축구협회에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 7.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6월 29일)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직을 기다리던 해고노동자가 또 세상을 떠났는데요. 9년간 30명의 죽음. 김득중 지부장은 “동료의 죽음을 막지 못해 큰 충격과 비통함을 느낀다”며 “복직에 대한 기다림이 답답함을 넘어 분노로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김 지부장은 염수정 추기경님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쌍용차 사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우리 모두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 청취자 참여: 문자메시지 #1053(100원 유료) 스마트폰 어플 'cpbc 뽕'